

국토교통부,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해야 - 26일 인천공항(항공사 정비고·관제탑) 찾아 항공안전 대응에 총력 강조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, 항공기 운항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였다.
 -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사고와 빈번한 기체 고장 및 결함 등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, 항공기 운항과 정비가 이뤄지는 일선 현장의 안전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.
- 먼저, 대한항공 인천 정비고를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적사 임직원들에게 “최근 발생한 국적사의 난기류 사고, 여압장치 고장사고와 저비용항공사(LCC)의 잦은 고장결함 등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신뢰가 흔들리고 있다”면서,
 - “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태울 수 없다는 기치 아래,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운항이 가능하도록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”을 강력히 주문하였다.
 - 또한, “잦은 고장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, 기업결함과 관련된 LCC들은 항공기 정비, 조종사 훈련, 지상조업,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서 장거리 운항능력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흔들림 없는 안전체계를 구축하라”고 강조하였다.
- 이와 관련하여, 국토교통부는 장시간 지연 및 결항 원인분석 등을 통해 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, 11개 국적사별 정비관리 체계 및 예방정비 수행실태 등에 대한 전수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.
 - 특히, 장거리 운항편이 증가하는 등 변화관리가 큰 LCC에 대한 안전 감독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, 항공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- 안전감독 활동 중 확인되는 취약점이 있으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토록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.
- 다음으로 인천공항 관제탑을 찾은 박 장관은 “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항공 강국으로 도약한 중심에는 24시간 하늘길을 지키는 관제사 여러분이 계셨다”고 격려하며,
 - “항공기 운항이 집중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을 만들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아울러, “관제는 항공교통 안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 만큼,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것”을 지시하였다.

2024. 6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